

2024년
7월 24일 水
(July-2024)

Monthly Yangji



• Edited / 입학상담실 (Rhee) • Published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모래실로16 양지메가스터디기숙학원 ☎ (031) 326-5000

입시 소식



① 2025 수시전형의 특징과 전망(下)

1. 자율전공(무전공) 전형의 영향 - 73개 대학 3만8천명, '자율전공'으로 선발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3만8천명 가량을 '자율전공'으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자율전공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의과대학 증원과 맞물려 올해 입시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학년도부터 자율전공 중점 추진 대학인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등 총 73개교가 3만7천935명을 자율전공으로 모집한다. 수시.정시 총 모집인원의 28.6%이며, 전년 대비 2만8천10명 늘어난 규모이다.

자율전공은 학생들이 입학 후에 흥미·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수험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부가 재정 지원과 연계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 소재 51개 대학의 경우 자율전공 모집인원이 2024학년도 7천518명(7.7%)에서 2025학년도 2만5천648명(29.5%)으로 모집한다. 국립대 22개 대학도 2천407명(4.5%)에서 1만2천287명(26.8%)으로 대폭 늘어난 인원을 모집한다. (표1 참조) 이들 대학들은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원하는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제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1', 계열·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원하는 전공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한 '유형2' 등 2가지를 자율전공 방식으로 선발한다. 대학들은 이 가운데 '유형1'로 1만4천844명(11.2%)을, '유형2'로 2만3천91명(17.4%)을 뽑는다.

교육계에서는 자율전공 확대와 관련해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지만, 경영학과나 컴퓨터공학과 같은 이른바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비인기 학문이 고사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입생들이 1학년 때 소속감 없이 학교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진로를 제대로 탐색하기에 1년은 짧은 시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입시기관에서는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전년도 합격선을 참고하기 어려운데다, 올해 의대 증원과 맞물려 자율전공이 입시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자율전공'은 순수증가 형식인 의대증원과 달리 기존 학과들에서 정원을 떼어오는 형태로 모집인원이 편성되기 때문에 다른 모집단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년의 입시결과가 무용지물 되거나 참고사항에 그치는 것이다. 의대증원은 상위권을 중심으로 혼

란을 준다면 자율전공의 확대는 전 모집단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더 큰 혼란을 준다. 지도하는 교사나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가 힘들어 하는 입시가 될 듯하다.

2. 화작, 확통, 사탐의 반란

올해 치러진 두 번의 학평과 6월 모평의 응시생 인원을 보면 미적/과탐이 줄고 화작/확통/사탐이 확실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작/확통/사탐 응시생이 늘면서, 의대열풍으로 인한 이과 중심의 쏠림현상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선택과목 지정을 폐지하면서 중하위권을 중심으로 수험부담이 적은 과목에 몰리는 중하위권 수험생의 이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상위권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5등급 이하의 중하위권 수험생의 이탈은 최상위권 의대를 중심으로 자연계 상위권의 등급 확보에 비상을 걸게 만든다. 중하위권 이탈로 연쇄적인 등급 하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과목별 응시생이 줄면 1등급 인원도 축소되면서 의대 지망생들의 고득점과 1,2등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표2에서 보는 것처럼 5월 학평에서 화작 응시생 비율은 전년 대비 1.3%p 증가했으며, 확통은 0.7%p, 사탐은 무려 3.8%p 증가했다. 2025학년 6월 모평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사탐 51.9%, 과탐 48.1%로 지난해 사탐 49.9%, 과탐 50.1%와 비교해 사탐의 비중이 2%p 증가

했다. 6월 모평 지원자 접수현황을 보면 의대 증원이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재수생 응시인원은 398명 증가에 그치고 있다. N수생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화작/확통/사탐으로의 연쇄 이동은 지역인재 전형의 수능최저 조건 충족을 위하여 애쓰는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1등급 인원이 줄어들면 수능최저 미충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모평 이후 의대입시 설명회와 반수 붐 가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들 반수생들은 상위권 수험생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상위권 수험생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은 수능

최저기준을 신경 쓰는 수험생들을 자극하는 내용이다. 모집 정원이 늘었다고 좋아하기 전에 공부에 집중해야할 이유가 여기 있다.



(표1) 2024-25학년도 주요 대학 자율전공 선발 현황

	대학	2025 학년도		증감
		2025	2024	
1	서울대	546	521	25
2	연세대	480	388	92
3	고려대	196	0	196
4	서강대	465	341	124
5	성균관대	280	0	280
6	한양대	250	0	250
7	이화여대	532	408	124
8	중앙대	389	300	89
9	경희대	406	182	224
10	한국외대	835	116	719
11	서울시립대	78	30	48
12	건국대	729	0	729
13	동국대	325	69	256
14	홍익대	1111	1110	1
15	숙명여대	381	30	351
	계	7,003	3,495	3,508

자료출처 : 교육부(단위:명)

(표2) 2024~25 6월 모평 탐구과목 응시인원

영역	과목	2025		2024		증감
		응시인원	비율(%)	응시인원	비율(%)	
탐구	사탐	271,676	51.9	243,767	49.9	+2.0
	과탐	252,265	48.1	244,993	50.1	-2.0
	계	523,941	100.0	488,760	100.0	-

(표3) 2024~2025 5월 학평 과목별 응시인원

영역	과목	2025		2024		증감
		응시인원	비율(%)	응시인원	비율(%)	
국어	화작	189,868	63.6	176,588	62.3	+1.3
	언매	108,455	36.4	106,783	37.7	-1.3
	계	298,323	100.0	283,371	100.0	-
수학	확통	155,645	52.3	145,868	51.6	+0.7
	미적분	134,204	45.1	128,697	45.6	-0.4
	기하	7,474	2.5	7,927	2.8	-0.3
	계	297,323	100.0	282,492	100.0	-
탐구	사탐	333,448	55.9	294,853	52.1	+3.8
	과탐	262,533	44.1	270,832	47.9	-3.8
	계	595,981	100.0	565,685	100.0	-

② 합격 시기 (나는 이렇게 공부 했다!!) 13기 운정은 (고려대, 중앙대 합격)

Q. 재수 성공 한마디

수능은 장기전입니다. 오랜 기간 자신을 갈고닦고, 단 하루로 공부의 결과를 판단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 당일, 그 목표지점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수능은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기에 수능 전날, 혹은 그 당일 시험을 치기 직전까지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오직 그 전까지 자신이 해온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뒤흔하다면 수능날에도 자신감을 가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분명 수능을 잘 보게 됩니다. 수능은 생각보다 그 당일날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날을 위해 불

안해하지 말고, 자급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내 눈 앞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남에 대한 시선에서 벗어나고 오로지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습 중 옆 친구의 소리가 신경쓰인다거나, 학원에서의 규율이 맞지 않다고 느끼거나, 선생님 또는 부모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는 것은 결국 내 손해입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답은 명쾌해집니다. 단 순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이 주에 한 번씩 감기에 걸릴 때 '수능날 운이 되게 좋으려나보다.' 생각했고, 방해되는 친구가 있으면 수능날에도 어떤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기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Q. 메가스터디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인가요?

제 성적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바로 메가스터디학원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저는 이곳에서 큰 성적 향상을 이루어낸 인물로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 문제풀이를 위한 모든 틀을 만들어 나아갔다고 자부합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 풍부한 양질의 문제들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학원 내 학기제에 따라 개념, 실전문제풀이, 적용과 완성 단계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덕분에 공부방법과 속도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QUEL 모의고사에 큰 도움을 받았

습니다. 특히 수학 과목 모의고사는 수능 전 마지막 주에 오답 문제를 복기하며 다시 한 번 개념 정리에 이용할 정도로 질 높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회 탐구 과목의 문제 또한 기출 개념을 활용한 문제, EBS 연계 자료들로 이루어져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학 30제 또한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문제풀이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마련된 수학 30제 노트가 문제 해결과정을 써가는 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문제풀이를 끝낸 이후에는 문제에 사용된 주요 개념들을 밑에 적어내어 문제를 복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문제풀이량이 쌓여감과 동시에 실력이 늘고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이는 문제 풀 때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Q. 본인만의 학습 노하우를 소개해주세요. (과목별 학습법 포함)

저는 수업에 잘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념 설명을 들을 때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내용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체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을 필기하였습니다. 또 수업시간에 대답을 열심히 하며 선생님과 소통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점검하고, 오래 기억되도록 했습니다. 수업시간 외 자습시간에도 수업 내용 복습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한 과목을 듣고나서는 과목별 한 시간 이상 복습과 적용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과목은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메가스터디 인강으로 실력을

보완하였습니다. 전 과정을 듣는 것이 아닌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적으로 수강하였습니다.

국어 과목의 경우 하루에 꼭 독서 두 지문은 분석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초반에는 기출과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모의고사만을 분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지문 당 분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기출의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분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들로 스스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어느 순간 지문을 읽을 때와 분석할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뒀야 할지 보입니다.

수학 과목은 기숙학원 선생님들 강의를 들음과 동시에 현우진 선생님 뉴런 수1,2를 수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부족한 부분을 메웠습니다.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단원별 핵심 개념들은 포스트잇에 정리하였고, 포스트잇을 붙인 노트를 만들어 개념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노트 정리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말고 수업을 들으며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이와 함께 기출문제집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내며 특정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조금 쉬운 난이도의 문제는 개념 정리 차원에서 가볍게 풀고 넘어갔으며,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문제풀이 노트(수학 30제)에 풀이과정을 적고 파란펜으로 사용된 개념 포인트들을 풀이 옆에 적어냈습니다. 최근 3개년 평가원 기출 주요문제와 월별로 실시하는 프리미엄모의고사, 쉼 모의고사등과 주요 문제들은 문제정리 노트를 만들어 복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능이 임박한 시점(2-3주

전)에는 전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며 정리했던 것이 큰 도움

In Seoul Universities



출처 : 진학사

☐ 학원 소식

① 외진 시 의약품 대리구매 안내

약품 대리구매는 택배로 주문 불가능한 의약품만 가능합니다. 택배로 주문 가능한 물품(박카스, 비타500 등)은 대리구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외진 시 의약품을 대리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외진을 신청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약품 대리 구매를 진행해주시어도 됩니다. 약품 대리 구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점심 인원 점검이 끝난 후 3층 담임실에 외진 접수 받는 선생님들께 요청
2. 구매카드와 구매물품내역, 학반, 이름을 기재한 메모지를 외진 접수 받는 선생님들께 제출
3. 저녁시간을 이용해 학습관리실 방문하여 요청한 물품 수령

② 양지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관리

1. 물입관 및 실내 모든공간에서 정숙
 - 어떤 것보다 면학분위기가 최우선

임, 물입관에서의 비언어적 행동, 장난, 쪽지 엄금!!

2. 자습 중 실외배회 및 실내잡담 중점 관리
 - 3회 위반 시 징계위원회 회부 후 근신 조치
3. 단체복 착용의 생활화
 - 상, 하의 중 반드시 하나는 단체복을 착용! (나머지는 검정, 곤색, 남색만 허용)
 - 짧은 반바지 착용 불가!!
4. 중대규칙 위반하지 않기
 - 학원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입시에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음!